

새로 발견된 朝鮮 刊本 『傷寒指掌圖』 연구

¹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朴薰平^{1*}

A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Sanghanjijangdo*』 Published in the Joseon Period

Park Hun-pyeong^{1*}

¹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nalyzes the newly discovered manuscripts of the *Sanghanjijangdo*(傷寒指掌圖). A bibliographic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contents and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Methods : First,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Joseon text was conducted. Next, the contents of the composition were compared with the Yuan and early Ming publications of China.

Results : 1. The Joseon publication was published based on the original publication from the Yuan period. The *Sanghanjijangdo* has been cited in several medical texts from early Joseon such as the *Euibangyuchwi* and *Hyangyakjipseongbang*. 3. The background for publication of the *Sanghanjijangdo* is as following. First, it is an introductory text for beginners of Shanghan[cold damage] studies. Second, its contents do not conflict with the specialized Shanghan text that was used as the textbook for the royal physician examination. Third, it contains many Shanghan formulas that could be composed of domestic drugs only.

Conclusions : The *Sanghanjijangdo* could be described as an introductory text for beginners of Shanghan studies that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Shanghan studies in 15c mid-Joseon. Publication of this book clearly shows that Shanghan studies in early Joseon was practiced within the scopes of practicality and localization of medicinals.

Key words : Sanghanjijangdo, Shanghanlun, Euibangyuchwi, Hyangyakjipseongbang

* Corresponding Author : Park Hun-pyeong.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el: 061-330-3525, E-mail: lillipute@dsu.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Received(April 20, 2021), Revised(April 27, 2021), Accepted(April 27, 2021)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조선의 상한학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선에서 상한학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통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오재근은 상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鄉藥集成方』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¹⁾ 이경록은 『醫方類聚』 분석으로 당시 정부가 ‘상한’을 통하여 전염병 통제 의 의지를 천명하고 정점에 상한병을 두는 질환 인식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였다.²⁾ 오준호는 조선시대의 ‘상한’ 연구에 대하여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미흡했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³⁾ 박훈평은 ‘상한’ 관련 문헌들의 도입과 활용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박은 藥材 관련 현실적 제약은 해소되었으나, 의과 과목에서 상한 관련 문헌이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이유로 상한학 발달이 늦추어졌고, 寒門과 傷寒門을 종합한 『東醫寶鑑』 완성이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⁴⁾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현존하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선본이 아닌 중국본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관청에서 간행한 상한 전문서는 3종으로, 전라도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傷寒指掌圖』와 『傷寒賦』,⁵⁾ 1431년(세종 13)에 鑄字所에서 동활자로 간행한 『傷寒類書』이다.⁶⁾ 『傷寒類書』는 간행 당시에 50권밖에 찍지 않았고, 『傷寒賦』도 임진왜란 이전에 冊板이 손상되었으며 『傷寒指掌圖』도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은 없으므로,⁷⁾ 3종

모두 조선 중기 이래로 매우 희소한 책들이었다. 『傷寒類書』는 송대 양사영이 1264년에 저술한 상한 전문서로 조선에서는 1464년(세조 10) 의원의 취재 과목으로 활용되었으며, 1471년(성종2)에도 의원의 秋等 고강 과목으로 활용되었다.⁸⁾ 『傷寒指掌圖』는 중국 원대의 吳恕가 1338년에 저술한 상한 전문서로⁹⁾ 조선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醫方類聚』와 『鄉藥集成方』 등에서 주요 인용 의서로서 활용되었다. 『傷寒賦』는 현재 전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이들 3종의 상한 전문서에 대해서는 박훈평의 논의가 유일하다.¹⁰⁾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 조선본 『傷寒指掌圖』의 필사본이 최초로 발견되었다. 비록 목판본이 아니지만 조선본과 중국본 간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는 조선 시대 관청에서 간행한 상한 전문서를 대상으로 한 최초 보고라는 의의가 있다. 조선본 상한 전문서의 분석은 조선 전기 상한학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조선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판본별 비교, 내용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II. 본론

1. 서지와 구성

1) 형태 서지 및 저자

새로 발견된 『傷寒指掌圖』는 조선의 전통적인 製冊 방식인 오침안정법으로 된 不分卷 필사본 1책이다. 책의 표제는 표지와 내제지에 “傷寒指掌圖”로 되어있다(사진 1). 책의 크기는 17.6 × 26cm이고, 半郭 크기는 13.1 × 20.2cm이다. 界線이 있으며 行字는 일정하지 않다. 魚尾와 版心은 따로 필사되

구원, 1979. p.216.

8)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56.

9) 朱德明, 杭州醫藥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p.103.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校註說明 1.

10)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p.656-664.

1) 오재근, 조선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 실린 상한 논의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2. 25(2). pp. 122-136.

2)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성취와 한계 - 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3). p. 475.

3) 오준호, 양감상한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들의 상한 인식, 의사학. 2012. 21(1). pp. 6-19.

4)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78.

5) 정형우·윤병태, 한국책판목록 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216.

6) 『세종실록』, 1431년 5월 11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p.656-666.

7) 정형우·윤병태, 한국책판목록 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

지 않았다. 책의 분량은 내제지 1장과 본 내용이 기록된 겹장 80장(160면) 분량이다. 별도의 기록이 없어서 필사자나 필사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책의 紙質로 볼 때 필사 시기는 19세기가 상한 연대로 추정된다. 내용으로 보아 마지막 1면과 「制藥例」 항목(2면 분량)이 없는데 필사본 자체에는 탈락의 흔적은 없다. 조선 간행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때 본문 다음의 마지막 면에는 刊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사본의 저본 자체가 이 내용이 탈락되고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선본의 원래 분량은 82장으로 추정된다.



사진 2. 조선본 『傷寒指掌圖』의 인장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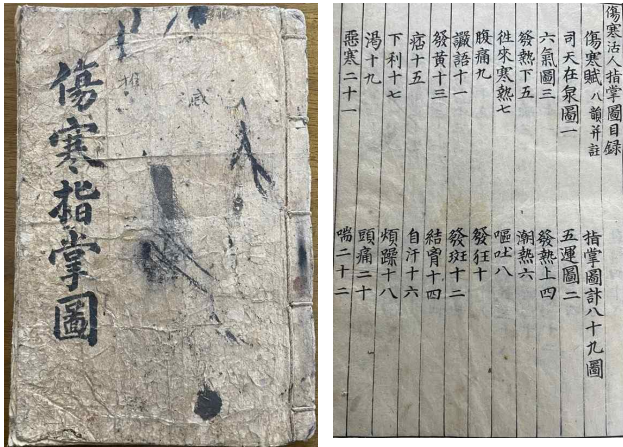


사진 1. 조선본 『傷寒指掌圖』 표지와 목록

尙從善의 서문과 自序 말미에 인장이 필사되었는데 元刻本¹¹⁾의 인장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사진 2). 예를 들어 마지막 인은 “蒙齋”로 저자의 字이다.

저자 吳恕는 중국 원대의 의사로 浙江省 杭州의 錢塘縣 출신이며 생몰은 미상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烏蛇丸로 風疾을 치료하여 生業을 삼다가 현 관리를 치료하여 명성을 얻고 후에 수도로 옮겨서 太醫院 御醫가 되었다. 『상한론』 연구에 힘써 1338년(원 지원 4)에 『지장도』를 저술하였는데 그의 유일한 저작이다.¹²⁾

2) 구성

기존에 알려진 『傷寒指掌圖』의 현존본은 모두 중국 간본으로 2종이다. 가장 오래된 元刻본은 중국 중의과학원도서관에 善本이 소장 중이다. 元代刻本 明輔修本은 현재 중국 浙江省 寧波市 天一閣 藏書樓에 殘本이 소장 중이다.¹³⁾ 2종 모두 유일본이다. 그의 송대 의사 李知先이 저술한 『傷寒活人書括』과 합쳐진 형태로 명대에 간행된 판본들이 있다.

조선본은 世祖가 1456년(세조 2)에 冊板 소재음으로 하여금 책을 간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¹⁴⁾ 그 1456년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1455년(단종 3) 4월에 판본이 있는 의서로 『傷寒指掌圖』가 거론

11) 본고에서 “원각본”이라 함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원대의 판본을 이야기한다. 중국 중의과학원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이 판본이 초간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2) 朱德明, 杭州醫藥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p.103.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校注說明 1.
 13)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p.校注說明 1-2.
 14) 『세조실록』, 1456년 8월 26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되지 않았다.¹⁵⁾ 그렇다면 1455년 4월과 다음 해 8월 사이에 책판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¹⁶⁾ 1568년(선조 1)과 1585년(선조 18)에 간행된 『攷事撮要』 책판 목록을 참조하면 조선본은 전주에서 간행되었다.¹⁷⁾ 元代刻本明輔修本은 邵武太守 馮孜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즉 馮孜가 邵武知府로 있던 1470-1476년(성화 6-12) 사이의 간본이다.¹⁸⁾ 그러므로 조선본은 간행 시기가 원각본과 원대각본명보수본의 사이이다.

조선본과 원각본과 내용 구성의 차이는 크게 둘이다(표 1).¹⁹⁾ 첫째 오서 글의 위치이다. 원각본의 발문이 내용 그대로 조선본과 원대각본명보수본에서는 목록 앞 서문으로 바뀌었다. 원대각본명보수본에서 중간자의 발문이 들어가면서 원래의 발문이 서문으로 옮겨간 것처럼 조선본도 간기가 들어가면서 원래의 발문을 서문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한맥법도」 항목이 원각본에서는 「상한부」 다음이나 조선본에서는 「釋音」 항목 다음이다(사진 3). 그 밖에 「약방요례·제약례」 항목이 필사본에서는 빠져 있다. 「制藥例」는 필사 저본 자체에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방유취」 인용부로 볼 때 원래의 조선본에는 그 내용이 있었다.

- 15) 『단종실록』, 1455년 4월 4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16) 본고에서 『鄉藥集成方』 인용 내용을 설명하면서 『傷寒指掌圖』의 조선 전래 시기는 『鄉藥集成方』의 편찬이 하한 연대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 간행 시기가 아닌 중국에서의 전래 시기를 말한다.
- 17) 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pp.31,53.
- 18) 鄭啓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127.
- 19) 표 내용에서 원문의 서문이나 발문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으나 구분을 위하여 편의상 붙인 것이다. 본고에서 조선본을 명대 간본과 비교하지 않은 까닭은 필사본의 저본이 조선 간본이라 시기가 앞선 이유도 있지만 명대 간본들이 李知先의 『傷寒活人書括』과 합쳐되어 원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 1. 『傷寒指掌圖』 판본별 구성의 비교

항목	원각본	조선본	원대각본명보수본
1 賈度序	○	○	×
2 尙從善序	○	○	×
3 自序	×	○	○
4 目錄	○	○	○(간결)
5 傷寒賦	○	○	○(간결)
6 傷寒脈法圖	○	○	○(간결)
7 指掌圖計八十九圖	○	○	○
8 釋音	○	○	×
9 藥方料例 ㉠ 酌准料例 ㉡ 增補藥品 ㉢ 制藥例	○	○(간결)	△ ㉢만 있음
10 藥方	○	○(간결)	○
11 跋文	吳恕跋	간기탈락추정	馮孜跋



사진 3. 조선본 『傷寒賦』와 『傷寒脈法圖』

2. 판본별 내용 비교와 인용본 고찰

1) 조선본과 원각본의 차이

원각본과 조선본은 구성상의 차이 이외에도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단순한 誤刻도 있고 뜻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글자도 있다. 원각본과 조선본

에서 글자가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다(표 2).²⁰⁾ 편명에 기록된 일련번호는 指掌圖 計八十九圖의 번호이며 약방의 번호는 약방의 일련번호이다.

표 2. 『傷寒指掌圖』 판본별 다른 내용의 비교

둥이의체자			
	편명	조선본	원각본
1	35. 蛔厥	虵厥	蛔厥
2	84. 雜證	蹇	蜷
3	釋音	虵	蛔
4	藥方 84	蠃皮	粗皮
5	跋	疾患莫測	疾患無測

원각본의 교감			
	편명	조선본	원각본
1	賈度序	分條析類	分條析疑
2	傷寒賦	霍亂與中暑相類	霍亂與中暑相復
3	傷寒脈法圖上	尺中三處	尺中二處
4	11. 識語	十一	十
5	37. 衄	得衄乃解	得血乃解
6	40. 筋惕肉瞤	津液衰竭	津液衰喝
7	42. 表裏寒熱	仲景之餘議	仲景之餘說
8	45. 血證	小便自利	小便自
9	79. 瘧病	臥不着席	臥不自席
10	藥方	52 乾薑半兩	乾薑乾兩
11		82 不得眠	不得服
12		134 須臾(修更)	須桂
13		136 一枚	一枝

조선본의 약방 번호 오류			
	편명	조선본	원각본
1	4. 發熱上	竹葉加姜汁湯 八六	八五
2	5. 發熱	小柴胡加減湯 四八	四九
3	下	竹葉石膏湯 八五	八六
4	7. 往來寒熱	大柴胡湯 四三	四二
5	12. 發斑	葛根橘皮湯 三二	三三
6	13. 發黃	茵陳三物湯 七八	九八
7	14. 結胸	小半夏茯苓湯百二六	百二十
8	15. 痞	大柴胡湯 四八	四二
9		小半夏茯苓湯百二六	百二十
10	18. 煩燥	霹靂散 二百四十	百三四
11	19. 渴	竹葉湯 八六	八五
12	25. 表裏俱見	桂枝芍藥湯 十五	十
13	40. 筋惕肉瞤	茯苓桂枝甘草白朮湯 百二一	百二二
14	49. 小便不利	甘草附子湯 百四三	百十五
15	54. 身痛	桂枝芍藥半夏生薑湯 七	五
16	60. 勞食復	竹葉石膏湯 八五	八六
17	65. 陽毒	青黛一物湯 百六十	百六一
18		玄蔘升麻湯 六六	六五
19	66. 陰毒	灸氣海 二百三四	二百三一
20	69. 三陽合病	白虎湯 七一	七十
21	76. 中暈	五苓散 百九	百七九
22		竹葉石膏湯 六五	八六
23	78. 熱病	麻黃加知母石膏湯 二九	二四
24	83. 四證類傷寒	越婢湯 二九	二八
25		竹葉石膏湯 八五	八六
26		陰旦湯 百六	百七

20) 원각본은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을 참조하였다.

약방 번호를 제외한 조선본의 오류			
	편명	조선본	원각본
1	尙從善序	仆提學江湖	仆提學江浙
2	4. 發熱 上	葛根升麻湯	升麻葛根湯
3	6. 潮熱	經胃	結胸
4	18. 煩燥	生薑附子甘草湯	乾薑附子甘草湯
5	45. 便膿血	脈數不解	有后脈數不解
6	49. 小便不利	柴胡桂薑湯, 小柴胡湯 순	小柴胡湯, 柴胡桂薑湯 순
7	67. 不可汗	溫毒	濕毒
8	69. 三陽合病	弦而長	浮而長
9	84. 雜證	目直不能胸發 衄家汗	目直視不能胸 發衄家汗

원각본의 교감에서 張仲景의 저술인 『傷寒論』과 『金匱要略』 원문 관련하여 교감된 사례는 4회이다 (표 3).²¹⁾ 이들 사례는 당시 조선의 의관들이 상한 텍스트에 익숙했다는 증거이다. 원각본의 오류에 대해서 다른 상한서를 활용하여 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조선본 『傷寒指掌圖』의 상한 텍스트 교정

	편명	조선본	출전
1	傷寒脈法圖 上	尺中三處	『傷寒論·辨脈法』
2	37. 衄	得衄乃解	『傷寒論·辨發汗後病脈證并治』
3	45. 血證	小便自利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法中』
4	79. 瘧病	臥不着席	『金匱要略·瘧濕喝病脈證病』

2) 『醫方類聚』 인용부 교찰

조선본이 오류인 경우는 대개 指掌圖 내용 중에서 藥方 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26회에 달한다(표 2). 조선본 자체가 잘못 판각되었을 수도

있지만, 필사자가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바로 세종, 세조 연간의 집필과 수정을 거쳐 1477년(성종 8)에 간행된 『의방유취』이다. 『醫方類聚』에서 『傷寒指掌圖』는 『권39』와 『권57』에서 인용되었다. 『권39』의 경우 「傷寒賦」, 「指掌圖」, 「傷寒脈法圖」의 순서로,²²⁾ 『권57』의 경우 「藥方料例」, 「藥方」 순이다.²³⁾ 약방에서 다른 책 인용과 중복된 내용은 본문에서 생략되었다. 원각본은 「傷寒賦」, 「傷寒脈法圖」, 「傷寒指掌圖」의 순이므로, 내용 순서는 조선본이 『醫方類聚』의 인용 저본이라는 증거이다. 서문 등이 빠져서 조선본의 원형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본문은 그대로 수록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현존 『醫方類聚』 본문의 탈락된 글자를 조선본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 『의방유취』의 탈락자와 조선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4). 조선본의 오류는 『醫方類聚』도 동일한 경우가 많다.

표 4. 『醫方類聚』 인용부와 조선본 비교

	편명	의방유취	조선본	비고
1	指掌圖	所不口者	所不盡者	탈락
2	6. 潮熱	結胸	經胃	정오
3	7. 往來寒熱	大柴胡湯 四二	大柴胡湯 四三	정오
4	15. 痞	大柴胡湯 四二	大柴胡湯 四八	정오
5	18. 煩燥	生薑附子甘草湯	乾薑附子甘草湯	정오
6	39. 漱水不欲咽	取盡黑物爲度	取盡黑(黑)物爲度	정오
7	40. 筋惕肉瞤	茯苓桂枝甘草白朮湯 百二二	茯苓桂枝甘草白朮湯 百二一	정오
8	45. 血證	小便自利	小便白	오류
8	45. 血證	小便自利	小便白	오류
9	65. 陽毒	青黛一物湯 百六一	青黛一物湯 百六十	정오
10		玄蔘升麻湯 六五	玄蔘升麻湯 六六	정오
11	67. 不可汗	濕毒	溫毒	정오

21) 劉渡丹,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p.5,90,198. 何任,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13.

22) 浙江省中醫學院, 醫方類聚 重校本 2版 第2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 341-379.

23) 浙江省中醫學院, 醫方類聚 重校本 2版 第3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 333-346.

12	69.三陽合病	浮而長	弦而長	정오
13	79.瘧病	臥不自席	臥不着席	오류
14	83.四證類傷寒	越婢湯 二八	越婢湯 二九	정오
15	84. 雜證	目直視不能胸發衄家汗	目直不能胸發衄家汗	정오
16	藥方 189	地榆散	地搗散	정오

그런데 조선본은 오류이나 『醫方類聚』에서는 正誤된 사례도 있는데 이는 대개 조선본의 필사 오류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指掌圖 39 漱水不欲咽」의 “取盡黑物爲度” 문장은 원각본과 조선본은 동일한데 『醫方類聚』만 “取盡黑物爲度”로 正誤되었다. 그런데 “黑”의 경우 조선 간본에서는 아래 자획이 지워질 경우 “里”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사진 4).²⁴⁾ 조선본의 「藥方 134」에서도 “須史”는 “須更”이 원 글자로 추정된다(표 2).



사진 4. 『鄉藥集成方 권6』의 “黑”과 “須更” 글자

3) 『鄉藥集成方』 인용부 고찰

『鄉藥集成方』은 유효동, 노중례 등에 의해 1433년(세종 15)에 완성된 의서이다. 김중권에 따르면 『鄉藥集成方·傷寒門』에서 『傷寒指掌圖』는 인용 순위 4번째이다.²⁵⁾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원문(표 5)을²⁶⁾ 검토하여 인용본의 저본이 원각본인지 조선본

24) 『鄉藥集成方』 사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April 8];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

25) 김중권, 향약집성방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 연구. 2006. 35 p.209.

26) 『鄉藥集成方』 원문은 김신근, 한국의학대계 1-6. 서울.

인지 알 수 있다면 이는 조선본의 간행연도 추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표 5. 『鄉藥集成方』의 『傷寒指掌圖』 인용

	권	항목	내용	출전
1	5	傷寒結胸	小半夏茯苓湯	약방 120
2	6	傷寒頭痛	五味子湯	약방 180
3			大半夏湯	약방 125 / 지장도 83 四證類傷寒
4		傷寒陰毒	陰毒薰法	약방 229
5		傷寒陽毒	水漬法	약방 232
6		傷寒發狂	青黛一物湯	약방 161
7		傷寒嘔吐	吳茱萸湯	약방 165
8	7	傷寒鼻衄	茅花湯	약방 192
9		傷寒心腹痞滿	桔梗枳殼湯	약방 173
10		傷寒心腹脹痛	桔梗半夏湯	약방 174
11		傷寒口瘡	密漬黃蘗汁	약방 84
12			升麻六物湯	약방 63
13	8	傷寒後虛煩	梔子升麻湯	약방 91
14		傷寒後虛羸盜汗	小橘皮湯	약방 169
15			橘皮乾薑湯	약방 171
16	76	指南總論	酌準料例	酌準料例

그러나 분석 결과 인용 차이가 나는 부분은 『鄉藥集成方』 저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며 해당 내용에서 원각본과 조선본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鄉藥集成方』의 인용 저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표 6). 다만 『傷寒指掌圖』의 조선 전래 시기는 『鄉藥集成方』의 편찬이 하한 연대가 된다. 『鄉藥集成方』은 1431년(세종 13) 가을에 세종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어 1433년 6월에 완성되었다.²⁷⁾

표 6. 『鄉藥集成方』과 『傷寒指掌圖』가 다른 부분

	항목	향약집성방	원각본	조선본
1	陰毒薰法	囊便下却	囊下却	囊下却
2	水漬法	布疊	疊布	疊布
3	桔梗枳殼湯	桔梗 枳殼	桔梗	桔梗

여강출판사, 1988을 참조하였다.

27) 『세종실록』, 1433년 6월 11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等分 去滓溫服	枳殼 去滓服	枳殼 去滓服
4	密漬黃蘗汁	鱸皮	粗皮	鱸皮
5	小橘皮湯	去滓, 分溫二服	去滓, 分二服	去滓, 分二服
6	橘皮乾薑湯	乾薑 人蔘 等分	乾薑 人蔘	乾薑 人蔘

4) 『醫林撮要』 및 『東醫寶鑑』 인용부 고찰

『醫林撮要 권1·歷代醫學姓氏』에 吳恕가 名醫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자는 如心이고 호는 蒙齋이다. 원나라 人和 사람인데, 『傷寒指掌圖』를 지었다. 字 如心, 號蒙齋 元之仁和人, 著傷寒指掌圖.” 『醫林撮要』 본문에는 『傷寒指掌圖』 인용은 없다. 김홍균에 따르면 『醫林撮要·歷代醫學姓氏』는 명대 의사 이천의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를 바탕으로 약간의 보충을 하였는데 오서 내용은 그대로이다.²⁸⁾

『傷寒指掌圖』를 인용한 마지막 의서는 『東醫寶鑑』이다. 그런데 『傷寒指掌圖』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과 원문의 인용 출전에 나오지 않는다.²⁹⁾ 그러나 『雜病篇 권3』 말미의 “傷寒賦”는 『傷寒指掌圖·傷寒賦』를 일부 문장만 바꾸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³⁰⁾ 1585년 간행된 『攷事撮要·冊板目錄』을 보면 『傷寒指掌圖』의 책판이 전라도 전주에 남아있었으니,³¹⁾ 『東醫寶鑑』 편찬 시에 쉽게 구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東醫寶鑑』에서 『傷寒指掌圖』 인용은 “傷寒賦”로만 국한되었다. 만약 『東醫寶鑑』의 “傷寒賦”가 전주장판 『傷寒賦』를 인용한 것이라면³²⁾ 재인용이 된다. 『東醫寶鑑·寒門』의 인용 문헌은 『상한론』 원문을 제외하면 상한전문서로는 주평

의 『活人(남양활인서)』(116회), 성무기의 『명리(상한명리론)』(17회) 도화의 『쇄언(상한쇄언)』(1회), 한지화의 『지화(상한미지론)』(1회)의 4종이 인용되었다.³³⁾ 조선 전기 관찬 의서에서 인용되거나 강학 교재로 활용되었던 상한 전문서 16종에서³⁴⁾ 『남양활인서』와 『상한명리론』만 다시 『東醫寶鑑』에 인용되었다. 『東醫寶鑑·寒門』은 『상한론』 원문 인용이 391 회로 다른 문헌의 인용보다 많다.³⁵⁾ 즉 송원대 상한학의 성과가 『東醫寶鑑』에는 주평과 성무기 외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조선 후기 상한학의 풍조는 일면 『동의보감』 인용 문헌 양상과 연결된다. 1719년(숙종 45) 이다 다카히요(飯田隆慶)가 조선통신사의원 백흥전에게 조선에서 유통되던 ‘상한’ 주해서를 묻자, 백은 상한론 본지를 얻는 데에만 힘쓴다 답하였다.³⁶⁾ 즉 역대의 학설보다는 원문 자체에 치중한 것이 『東醫寶鑑』 이후의 상한학 풍조였다. 그런데 이 원문조차 원서가 아니라 『東醫寶鑑』이나 『醫學入門』 등에서 추출된 2차 텍스트였다.

『東醫寶鑑』에서 ‘傷寒’ 내용의 변화는 항목 분류에서 두드러진다. 『傷寒指掌圖』와 『東醫寶鑑·寒門』에서 처방이 수록된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7). 전자의 항목이 증상별로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病因 내지 증후군으로 구분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藏結, 百舍 등 과거부터 이미 상병명으로 굳혀진 분류는 계속 활용되었다. 조선 전기 간행도 되고 취재 과목으로도 활용된 『傷寒類書』를 보면 『傷寒指掌圖』의 항목 분류와 유사하여,³⁷⁾ 조선 전기 통용되었던 ‘傷寒’에 대한 인식이 『東醫寶鑑』 이후로 크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분류 항목이 동일해도 해당 항목에 수록된 처방이 없거나 수록 수가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 『傷寒指掌圖』의

28) 김홍균, 김남일,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경희한대의대논문집 1998. 21(1). p.108. 『醫林撮要』 원문은 양예수 저, 이경록 역. 국역 의림촬요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를 참조하였다.

29)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 연구. 1996. 11. pp.215-216, 231-232.

30)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p.663-664.

31)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p.53.

32)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65.

33)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 연구. 1996. 11. pp. 231-232.

34)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67.

35)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 연구. 1996. 11. p. 231.

36) 기타오 슌린 편, 남성우 역, 국역 상한창화훈지집 2.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p.397.

37) 梁士瀛, 傷寒類書活人總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 目錄 1-4.

“燥熱”은 『東醫寶鑑·寒門』의 “傷寒燥熱” 항목과 같은데, 전자는 10처방이 수록된 반면 후자는 의문만 있고 처방은 전혀 없다. 물론 수록 처방 수의 감소는 전문서가 아닌 종합의서의 분량에서 오는 제약일 수 있다. 그러나 항목 분류의 변화는 “傷寒”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송원대 상한학의 경향은 운기학설의 영향과 이론 근거가 없이 기존 처방을 따른 점에서 찾을 수 있다.³⁸⁾ 『東醫寶鑑』의 ‘傷寒’ 분류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東醫寶鑑』의 분류 방식에 영향을 미친 의학사조는 명대 상한학과 관련되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은 아니다.

표 7. 『傷寒指掌圖』와 『東醫寶鑑·寒門』의 처방이 수록된 항목 비교

	『상한지장도·지장도』	『동의보감·한문』
다른 항목	發熱(上下), 嘔吐, 發斑, 發黃, 自汗, 頭痛, 惡寒, 喘, 嗽, 表裏俱見, 汗吐下後不解, 寒後不解, 下後不解, 火邪, 急下急瀉, 蛔厥, 白胎, 衄, 口燥咽乾, 漱水不欲咽, 表裏寒熱, 無表裏, 水氣, 便膿血, 乾嘔, 小便不利, 小便自利, 小便數, 多眠, 身痛, 咽痛, 咳逆, 吐血, 兩感, 三陰陽明病, 戰寒四證, 懊懣, 短氣, 疫癘, 中喝, 奔豚, 熱病, 瘧病, 霍亂, 濕病, 溫病, 四證類傷寒, 不得汗, 汗後惡寒, 頭汗, 背惡寒	陽感傷寒爲死證, 太陽形證用藥, 陽明形證用藥, 少陽形證用藥, 太陰形證用藥, 少陰形證用藥, 厥陰形證用藥, 傷寒陽證, 傷寒陰證, 傷寒表證, 傷寒裏證, 傷寒半表半裏症, 陰盛隔陽, 陽盛隔陰, 陰極似陽, 陽極似陰, 傷寒看面目舌色, 傷寒戰慄, 傷寒動氣, 傷寒動悸, 傷寒無脈爲盜汗, 差後昏沈, 餘熱不退, 傷寒治法, 感寒及四時傷寒, 外感挾內傷證, 中寒證, 孕婦傷寒, 痲冷
유사 항목	潮熱, 往來寒熱, 腹痛, 發狂, 譫語, 結胸, 痞, 下痢, 煩燥, 厥, 過經不解, 百合, 陰陽易, 狐惑	傷寒陰厥, 傷寒陽厥, 傷寒陰毒, 傷寒陽毒, 惡寒惡熱往來寒熱, 傷寒合病, 傷寒併病, 傷寒煩燥, 傷寒煩渴

筋傷肉瞤, 下後熱, 血證, 熱入血室, 腹脹, 動悸, 復食復, 雜證, 壞證, 藏結, 陽毒, 陰毒, 不可汗, 不可下, 三陽合病, 并病, 雜證	傷寒潮熱, 傷寒發狂, 傷寒譫語鄭聲, 傷寒結胸, 傷寒藏結, 傷寒痞氣, 傷寒筋傷肉瞤, 傷寒血證, 傷寒自利, 傷寒胸腹痛, 傷寒吐衄, 壞證, 百合證, 過經不解, 勞復食復證, 陰陽易證, 熱入血室證, 狐惑證, 傷寒差後雜證, 可汗不可汗證
--	---

3. 내용 특성과 간행 배경

1) 내용 특성

쟁판지(鄭磐基)와 왕에리양(王爾亮)에 따르면 『傷寒指掌圖』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공헌이 있다. 첫째 外感熱病 범주를 논하였다. 이는 『상한론·상한례』를 계승한 것인데, 溫病, 熱病, 中渴, 濕病, 瘧, 陰陽毒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경락에 근거하여 六經병을 설명하였다. 셋째 運氣학설을 증시하였다. 넷째 傷寒傳經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脈과 證의 변별을 증시했다. 여섯째 외감열병의 證治를 논하였다. 일곱째 약물 용량을 고증하였다. 『傷寒論』이 저술된 한대와 『傷寒指掌圖』가 저술된 원대의 용량 단위가 서로 다름을 인식한 결과이다. 여덟째 『傷寒論』의 처방을 보충하였다. 『傷寒論』의 처방 외에 164개의 처방을 증보했다.³⁹⁾

이상의 논의를 보면 『傷寒指掌圖』는 초학자를 위한 상한 입문서라 평할 수 있다. 본문 처음은 낭송 내지 암송 목적의 문체로 쓰인 「傷寒賦」로 시작한다. 실전된 조선본 『傷寒賦』나 주요 내용 앞에 歌括을 둔 『傷寒類書』의 사례처럼 조선에서 간행된 상한 전문서는 모두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傷寒賦」 다음으로 「傷寒脈法圖」와 「指掌圖」가 이어지는데 모든 내용을 그림과 표로 만들어서 독자가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사진 3). 내용에 나오는 처방은 좌측에 처방 이름과 일련번호를 기록하고 처방 구성은 모두 「藥方」으로 묶어서 본문 끝으로 보냈다. 이 번호 덕분에 처방 구성을 쉽게 약방에서 찾아서 참조할 수

38) 김기욱, 박현국. 상한 의학사에 관한 연구 2.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2). pp. 154-155.

39) 鄭磐基, 王爾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p.129-137.

있다.

2) 조선본 간행 배경과 의의

역대로 상한 전문의서가 다수 존재했다. 그중 『傷寒指掌圖』를 비롯한 단 3종만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간행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에 전래된 상한 관련 책들이 이들 3종 이외에도 있었음은 『鄕藥集成方』의 인용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주굉의 『남양활인서』, 성무기의 『상한명리론』 등이며, 『상한론』 원문본도 확인된다.⁴⁰⁾ 그런데 『상한지장도』는 인용 횟수가 6회 미만인 다른 상한 전문서에 비해 15회로 상대적으로 많다. 『향약집성방·상한문』에서 『傷寒指掌圖』는 醫論없이 藥方에서만 인용되었는데(표 5), 『傷寒指掌圖』보다 더 많이 인용된 의서는 『태평성해방』, 『성제총록』, 『주후방』의 3종이다.⁴¹⁾ 『태평성해방』은 100권, 『성제총록』은 200권으로 된 큰 규모의 책으로⁴²⁾ 간행하여 보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葛洪의 『주후방』은 처방 위주의 방서로 상한 전문서가 아니다. 물론 『鄕藥集成方』에서 유독 『상한지장도』의 인용이 많은 점은 당시 조선본이 이미 간행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원나라까지의 상한학 성과를 담아 증보된 240개의 처방을 “藥方” 항목으로 모은 점은 참조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산 약제로만 구성할 수 있는 처방을 다른 상한 전문서보다 더 많이 수록한 점은 당시 지배층에게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傷寒指掌圖』의 내용 특색은 처방보다는 보기 쉽게 도표화되어있는 『指掌圖』에서 두드러진다. 『鄕藥集成方』 인용은 처방에 치중하여 그러한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후대에 편찬된 『醫方類聚』의 『傷寒指掌圖』 인용은 『鄕藥集成方』과 다르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발문과 목록 등을 제외한 본문이 거의 인용되었다. 이로서 『醫方類聚』의 편찬자들이

“傷寒” 관련하여 『傷寒指掌圖』를 중시했음이 확인된다. 『醫方類聚』에서 인용된 상한전문서는 15종으로⁴³⁾ 『남양활인서』, 『상한유서』, 『상한명리론』, 『천옥집상한론』, 『통진자상한괄요』의 5종은 『鄕藥集成方』에서도 인용되었다. 양사영의 『傷寒類書』는 1430년에 의학 취재과목이 되어 다음 해에 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양활인서』를 중심으로 하였다.⁴⁴⁾ 루밍신(遼銘昕)에 의하면 『傷寒類書』는 맥과 증을 합하여 살피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八綱변증과 六經 위주로 한다.⁴⁵⁾ 그런데 證合參은 『傷寒指掌圖』의 학술적 특색이기도 하다. 또한 두 책 모두 주굉의 『남양활인서』의 영향이 강하다.⁴⁶⁾ 『傷寒指掌圖』에서 『남양활인서』 인용은 陽毒 처방에서 化班湯, 『藥方料例·增補藥品』의 첫 문장 등이다.⁴⁷⁾ 『活人書』는 『傷寒指掌圖』의 내용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처방들을 말미에 따로 두는 점,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점 등이다.⁴⁸⁾ 다만 도표화시키는 것은 『傷寒指掌圖』에서 전면적이다. 『상한유서』와 같이 취재 과목으로 활용된 이지선의 『상한활인서괄』도 『남양활인서』를 계승한 책이다.⁴⁹⁾

이상 『傷寒指掌圖』의 간행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상한 입문서로 독자가 활용하기 편했다. 둘째 취재 과목으로 활용된 상한 전문서와 내용상의 상충이 크게 없었다. 셋째 국산 약제로만 구성할 수 있는 상한 처방들을 다수 수록하였다. 따라서 『傷寒指掌圖』 간행의 의의는 조선 전기 상한학이 실용성과 향약화의 범주 안에서 실천되었다는

40) 오재근, 조선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 실린 상한 논 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2). p.130.

41) 오재근, 조선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 실린 상한 논 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2). p.130.

42)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pp.254-255.

43) 최환수·신순식. 의방유취의 인용서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은문집. 1997. 3(1). pp.17-18,

44)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57.

45) 遼銘昕. 宋代傷寒學術與文獻考論. 北京. 科學出版社. 2017. pp. 236-238.

46) 朱德明, 杭州醫藥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p. 103. 遼銘昕. 宋代傷寒學術與文獻考論. 北京. 科學出版社. 2017. p241.

47)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pp. 25,83

48) 朱肱, 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 目錄 1-18,

49)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p.659.

점이다. 그렇다면 향후 『東醫寶鑑』 이후의 상한학에서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

Ⅲ. 결론

『傷寒指掌圖』는 원대 吳恕가 1338년에 저술한 상한전문서로 조선 전기에 목판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傷寒指掌圖』 필사본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상한 전문서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본고를 통하여 조선본을 분석하여 서지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판본과의 대조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傷寒指掌圖』의 내용 특성을 살피고 조선에서의 간행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본은 원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내용 구성이 일부 바뀌었는데, 『傷寒脈法圖』와 吳恕 글의 위치가 바뀌었다. 내용상 『傷寒論』 원문의 오자를 수정하는 등 당시 조선의 상한학이 원문 교감을 할 정도의 수준임이 확인된다.
2. 『傷寒指掌圖』는 조선의 여러 의서에서 인용되었다. 『醫方類聚』의 인용 저본은 조선본이며 『鄉藥集成方』의 인용 저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東醫寶鑑』에선 “傷寒賦” 항목만 인용되었다.
3. 『傷寒指掌圖』의 간행 배경은 첫째 상한 입문서로 독자가 활용하기 편한 점, 둘째 취재 과목으로 활용된 상한 전문서와 내용상 상충되지 않는 점, 셋째 국산 약재로만 구성할 수 있는 상한 처방들을 다수 수록한 점이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상한 전문서 『傷寒賦』는 『傷寒指掌圖』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는 가설에 불과하다. 『傷寒賦』나 조선본 『傷寒類書』의 실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傷寒指掌圖』는 초학자를 위한 상한 입문서로서 15세기 중반 조선 상한학의 저변을 확대했던 책이라 평할 수 있다. 『傷寒指掌圖』 간행은 조선 전기 상한학이 실용성과 약재의 국산화라는 범주 안에서 실천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References

1. 기타오 승린 편, 남성우 역, 국역 상한창화훈지집 2.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2. 김기욱, 박현국. 상한 의학사에 관한 연구 2.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2).
3. 김신근, 한국의학대계 1-6. 서울. 여강출판사, 1988
4.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 연구. 1996. 11.
5.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6. 김중권, 향약집성방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 연구. 2006. 35.
7. 김홍균, 김남일.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대하여.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 21(1).
8.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2.001>
9. 박훈평, 조선 전기 상한 관련 문헌의 도입과 활용 연구, 의사학. 2019. 28(3). <https://dx.doi.org/10.13081/kjmh.2019.28.649>
10. 양예수 저, 이경록 역. 국역 의림촬요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11. 오재근, 조선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 실린 상한 논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2).
12. 오준호, 양감상한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들의 상한 인식, 의사학. 2012. 21(1).
13.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성취와 한계 - 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3)
14. 정형우·윤병태, 한국책판목록 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5. 최환수·신순식. 의방유취의 인용서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 3(1).
16.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 한중의학사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17. 遼銘昕. 宋代傷寒學術與文獻考論. 北京. 科

- 学出版社. 2017.
18. 梁士瀛, 傷寒類書活人總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19. 劉渡丹, 傷寒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20. 朱肱, 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21. 朱德明, 杭州醫藥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22. 浙江省中醫學研究院, 醫方類聚 重校本 2版 第2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23. 浙江省中醫學研究院, 醫方類聚 重校本 2版 第3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24. 鄭磐基, 王尔亮 校註, 吳恕 著. 傷寒活人指掌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6
 25. 何任,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2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April 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27.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April 8];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